

특별기고

광주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으로 꿈을 만드세요



황수주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사무국장

작년 7월 스마트폰 페이스북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성새님, i am in medan. 하하, 잘지내시어?”라고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봤더니 2012년 11월 일주일 간의 일정으로 광주광역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때 방문했었던 인도네시아 메단시의 수도모고등학교의 ‘엘비라’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당시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귀여운 표정으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넌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인도네시아 메단시는 광주광역시와 1997년 자매결연을 한 도시로 해마다 양국 도시의 청소년들이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

들이 현지를 방문하면 메단시 청소년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형태로 상호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도시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교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과 우리 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한국인과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엘비라는 한국어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거리적인 제한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이트를 몇 군데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 해 6월 중순, 10일간의 일정으로 10여 명의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주요 방문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먼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와 외국인 관광 관련 블로그 등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대박,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대박’이라는 말까지 알고 있구나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메단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표정이 구김살 없이 아주 밝았다는 것입니다. 오전 8시에 등교해서 오후 2시경이면 모든 일정이 끝

나고 그 이후 시간은 자유시간입니다. 한국과 같이 입시와 선행학습,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서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문제 또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의 현실에 대해 얘기를 해 주면 이해를 할 수 없어 하는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행복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반 점수를 깎아 먹고 있다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른들이 애들을 처음 만나면 거의 “너 공부는 잘 하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어른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지? 애들은 되묻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오로지 공부 때문에 존재감도 없고 자아존중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성장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추억을 선물해 줍시다. 미래를 보는 안목을 키워줍시다. 광주광역시와 한국청소년연

권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과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위해 2014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가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 해 교류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중국으로, 말레이시아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간, 중국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광주 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청소년 대표로 파견 기간 동안 학교방문과 청소년 교류활동, 현지 문화 및 역사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류활동 과정에 실패가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언어가 안 돼 자포자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면서 몸짓 발짓하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도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점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엘비라 가족이 한국 방문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갖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종교칼럼

공도(公道)의 주인



송지은 원불교 교무·광주원음방송 편성제작팀장

얼마 전 행사가 있어 여수에 갔다가 유적지를 돌아보는 데 가는 곳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전라좌수사로 여수에 부임한 이순신 장군은 왜적의 침입에 대비했고,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었던 여수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 출정시킨 곳이라고 한다.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육포와 울포, 노랑, 명랑, 한산도 등에서 거둔 승리는 조선이 왜적과 싸운 7년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 일컬으며 위인으로 만인이 존경하는 이유는 단지 왜적과 싸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로운 나라를 구한 큰 업적이 있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을 성웅으로 받들고 후손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여기는 더 큰 이유는 그의 일생이 오롯한 공도(公道)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 “충무공은 마음을 쓸 때 도가 있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에 넘치는 바가 없어 모든 군졸과 생사 고락을 함께했고, 권세를 잃어 일개 마졸이 되었지만 마음에 원망과 타락이 없이 말 먹이는 데에 전력을 다해 맡을 살피게 했다. 또한 때때로 말에게 ‘내가 비록 짐승이지만 공덕(國祿)을 먹고 이만큼 자랐으니 국가 존망의 시기를 당해 힘을 다하라’고 타일었다. 충무공은 편안하고 명예로운 일은 다른 장군에게 돌리고, 어렵고 명색 없

는 일은 자신이 차지해 오직 위를 섬김에 충성을 다하였고 아래를 거느림에 사랑을 다하였으니, 과연 그는 지(智)와 덕(德)을 겸비한 성장(聖將)”이라고 칭송했다. 일생 동안 개인의 안락을 버리고 오직 공을 위해 헌신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심법(心法)을 오랜 역사가 흘렀어도 수많은 후손들이 우리를 받들며 공경하고 있는 것이다.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뜨거운 애국혼이 사무치게 전해지는 추모의 달이다. 그들에게도 그리운 부모가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조국을 위해 산화한 애국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않고 그 뜻을 이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의미 있는 달이다. 추모의 달 6월에 공인(公人)으로 사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돌아보게 된다. 공인(公人)은 참 주인의 모습이란 생각이 든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주인으로

살면 항상 전체를 먼저 살피고 모두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 주인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뒷자리에 있든 앞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정성을 다하고,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 결국 그 일도 성공시키고 그 직장과 사회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간혹 공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결국 개인의 명예와 이익(利慾)을 쟁기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공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하면 개인과 가정이 함께 드러나는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불교 2대 종법사 정산종사께서는 의로운 일에 고난과 굴곡이 많은 역사는 만고에 영예롭지만, 옳지 못한 환락에 젖었던 역사는 만고에 부끄러움만 남는다고 밝혔다. 추모의 달 6월에 나라와 조국을 위해 공도에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도록 공도의 삶을 이어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社說

장성 요양병원 비상구까지 폐쇄했다니

장성 요양병원 참사가 결국 인제(人災)였음을 말해 주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다. 화재가 발생했지만 비상구는 폐쇄돼 있었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비리가 개입된 그야말로 ‘제로’ 수준이었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호사량요양병원 인제을 통고시켜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사장과 병원 측 인사, 장성보건소 공무원, 소방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지만 이 정도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안 된다. 관련 기관과 업체 등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매달 소방점검을 민간업체가 하도록 돼 있으나, 화재시 진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 소방법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서둘러 개정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근 고령자의 증가로 요양병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선거사범 수사·재판 단호하고 신속하게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과거에 비해 떠들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막판 대혼전을 벌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흘러 불·탈법이 난무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257명이다. 광주지검에 113명, 순천지청 66명, 목포지청 56명, 해남지청 17명, 장흥지청 17명 등이다. 이는 지난날 16일 후보자 등록 마감 일 당시 적발한 선거사범(87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선거가 임박하면서 고소·고발이 잇따랐던 점을 감안하면 형사처벌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후보 매수설’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됐던 담양군수 후보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고 장성군수 후보 부인의 금품 제공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대상자 중에는 당선자도 일부 포함돼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2월4일까지다. 검찰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법 재판 시한도 지켜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사범 처리가 늦어지면 후유증도 적지 않다. 특히 당선자의 경우 신분의 불안정에 따라 기강이 서지 않고 행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금품 제공,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엄벌해야 한다. 불법을 저질러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들으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있다. 베트남 전쟁의 참사와 실체를 고발한 영화 ‘플래툰’의 한 장면이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엘리엇스 병사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헬리콥터를 향해 두 손을 치켜들고 절규하는 장면. 이 때 요란한 헬리콥터 소리와 함께 이 음악이 흐른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며 다들 ‘그 장면’을 이야기했던 게 떠오른다.

1013석을 갖춘 현대극장은 1961년 10월 12일 문을 열었다. 위경혜의 ‘광주의 극장 문화사’에 따르면 현대극장은 당시 1억 원을 투자해 매점, 다방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다. 극장 내부에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은 광주 최초의 서구적인 시설로 사람들에게 대단한 구경거리였다고 한다.

현대극장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줄리엣 비노쉬 주연의 ‘프라하의 봄’ 극장에 서 반 기역도 난다. 극장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비나와 테레사에 대해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떠오른다. 아주 오래 전 일인데도 두 영화를 봤던 극장은 기억에 남아 있다. 현대극장이다. 최근 현대극장이 철거됐다. 현대극장은 지난 2002년 이정향 감독의 ‘집으로’를 끝으로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전문 공연장인 ‘맥스 씨어터’가 문을 열었지만 여부족이었고, 오랫동안 활약을 찾지 못한 채 빈 건물로 남아 있었다. 앞으로 도시형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서는 모양이다.

개관 특선 영화는 최무룡·김승호 주연의 ‘불효자’(이만희 감독)였다. 1962년에는 안익태 지휘로 교향악단 연주회가 개최됐고 1970년대에는 남진 귀국소와 하춘화 리사이틀 쇼도 열렸었다. 현대극장에 대한 추억 한 두 개쯤 갖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극장 철거 소식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제 광주에 남은 단관극장은 내년이면 80살이 되는 광주극장 한 곳이다. 다행스럽게도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광주극장 영사기는 곳곳이 들어가고 있다. 도시의 역사와 그 곳에 살고 있는 이들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 고

사회문제 뒤에는 언제나 도덕적 양심이 숨어있다



유순남 수필가

보름 전 아버지 기일. 서울에 사는 큰인 나는 인사 나누기가 무섭게 “너 아직도 누가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나?” 하고 염려 반 놀림 반으로 물었다. 유년시절에 나는 언니들을 따라 화산 남산에 있는 전주교회를 다녔는데, 언니가 나를 놀리는 것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있었던 일 때문이다. 그 시절 전주교회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아이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주었다. 그 때의 빵 하나는 아이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이었다. 아이들은 수녀님이 하나씩 나누어주는 차례를 기다리

못하고 “저요, 저 주세요!”하며 아우성을 쳤다. 수녀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줄게요!”하셨다. 나는 수녀님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앞을 다투며 먼저 받고서 애를 썼다. 한동안의 소란이 점점 잦아들더니 조용해졌다. 모두들 손에 빵을 들고 좋아했고, 어떤 아이는 두 개를 들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 그런데 수녀님께서 끝까지 가만히 앉아있었던 나에게 빵을 주지 않으셨다. 지금이야 “저는 안주셨어요.”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여리고 어린 소녀였던 나는 그런 말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서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언니가 “너는 왜 빵이 없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대신 울음보를 터트렸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나를 보신 어머니가 이유를 물으셔서 “수녀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빵을 다 준다고 하셔서 가만히 있었는데 안주셨어요.”했더니 언니들이 나를 바보라고 놀렸다. 난 “아니야, 수녀님이 잘못하신거야, 마지막에 ‘안

받은 사람은 손 들어봐요!’하셨으면 손을 들었을 텐데....”하며 놀리는 언니들을 원망했다. 그때 그 사건은 나에게 상당히 큰 가치관의 혼란을 주었지만, 세월호를 타고 어린들의 말을 믿었다가 다시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 아이들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힌다. 사고 후 여기저기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네,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네, 견제와 균형 장치를 정비해야하네, 책임 있는 자의 도덕성과 직무능력이 필요하네 등의 사후 약방문이 성시를 이룬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은 급속한 변침·과적·평형수부족·설계 변경·부실 대응 등으로 보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뒤에는 돈 문제가 있지만, 돈 문제 뒤에는 도덕적 양심이 숨어있다. 세월호 사고 이전이나 이후에도 버려진 양심이 만들어낸 사고는 도처에 있다. 20년 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그 이듬해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리고 며칠 전 충남 아산에서 준공을 앞둔 오피스텔 건물이 기울어

붕괴 위기에 있는 사고도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버린데 원인이 있다.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친다면 안전할까? 외양간 수선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려면 물질의 분배 문제도 해결해야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국민의 도덕성 회복의 문제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정도 살면 이제 경제는 조금 더디게 성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 일을 계기로 경제성장을 한 박자 늦추자! 그리고 우리 인간 본디의 마음 즉 태어날 때 각자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난 어질고, 정의롭고, 예의 있고, 지혜로운 마음을 되찾아, 같고 닮는 일이 전 국민에게 필요할 때라고 본다.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하루빨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혜택 받는 사회가 되도록, 아니 혜택이 없어도 그렇게 일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라!

과음 후 다음날 ‘숙취운전’ 절대 금물

봄철 나들이, 지역축제 등 가족과 연인 단위로 자동차를 몰고 나서는 나들이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결혼식이나 문상을 가야하는 관혼상제, 친한 벗들이 모이는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빈번해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더욱 염려되는 계절이다. 그러나 이처럼 위험한 음주운전이야말로 누구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전날 늦게까지 과음을 한 후에도 별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등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숙취운전은 염연한 음주운전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수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판단력

을 저하시키며 졸음을 유발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흡수된 알코올이 제거되는 소요시간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5%의 경우 7시간, 0.1%의 경우 10시간 정도 경과되어야 몸속에는 알코올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 다양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차량을 운전할 때 숙취상태의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정시도 침착하게 운전자보다 평균 시속 16 km 가량을 더 빨리 달리고 차선을 벗어

나는 것이 4배, 교통신호 위반이 2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와있다. 따라서 하루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면 버스 또는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 혹시라도 벌일 없고 관장했지라는 안일 무사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달리다 보면 미처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타인까지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앙림로(학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대체부 2200-696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